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</b> <b>하나 된 대한민국</b> 
	배포일시	2018. 2. 9.(금) 총 6매(본문3, 붙임3)	
담당 부서	수자원개발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병언, 사무관 임성훈 ☎ (044) 201-3607, 3611
	K-water 낙동강사업계획처	담 당 자	• 처장 임병민, 부장 김병수 ☎ (053) 668-1290, 1295
보 도 일 시		2018년 2월 12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2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최악의 가뭄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공급

###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공사 완료...고산정수장에 하루 12만 7천 톤 공급

□ 지난해부터 계속된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던 운문댐 급수지역(대구시·경산시·영천시·청도군)의 물 부족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한국수자원공사(사장 이학수)는 운문댐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한 「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」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, 13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(손병석)이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(通水式) 행사를 갖는다.

□ 국내 용수댐 중에서 최대 규모인 운문댐\*은 작년부터 댐 준공 이후 최악의 강우 부족\*\*이 계속됨에 따라, 홍수기 초반인 작년 7월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댐 용수 비축\*\*\*을 시작하였다.

\* 운문댐 총 저수용량(계획홍수위 기준): 1억 6천만 톤 (밀양다목적댐 7천 4백만 톤의 2.2배)

\*\* '17년 1월 이후 강수량은 621mm(예년의 49%), 유입량은 예년의 16% 수준

\*\*\* '17년 7월부터 하천 유지용수를 감축하고, 8월부터는 낙동강(매곡취수장) 및 금호강(경산취수장)에서 운문댐 용수 대체 공급 중 (최대 10만 7천 톤/일)

- 홍수기 후반까지도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천댐 하류에서 금호강 물을 취수하여, 운문댐에서 대구시 고산정수장으로 공급되는 용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공급대책\*을 마련하였다.

\* 운문댐에서 고산정수장으로 공급 중인 「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」 관로에 금호강에서 끌어오는 도수관로를 연결하여, 운문댐 공급량(12만 7천 톤/일)을 대체 공급

- 지난 해 10월 통합물관리상황반\* 회의에서 「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 사업」이 결정된 후,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여 올해 1월 말 통수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종합 시운전 및 시험운영을 실시해 왔다.

\* 국무조정실 주관, 국토부·환경부·기재부·농식품부·행안부 참석

- 한파로 인해 공사 추진이 어려운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동안 최대 9개 작업팀을 투입하고 24시간 돌관공사를 시행하여 관로 3km와 취수장, 가압장 시설 등을 차질 없이 설치 완료하였으며,
- 공기단축을 위해 고강도 공장제작 콘크리트\* 등의 신공법을 적용하고, 고품질 현장관리에 주력하여 무사고 건설현장을 실현하였다.

\* 구조물의 외벽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고강도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

- 또한, 관로공사가 시행된 구간의 대부분이 대구시와 경산시를 잇는 도로로 차량 통행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, 대구시와 경산시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순조로운 공사 진행에 큰 힘이 되었다.

\* 통수식 이후 물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, 가압장 건축물 설치 및 도로 정식 포장 등의 사업 마무리는 올해 12월까지 완료 예정

- 운문댐은 당초 2월 초 저수위에 도달하여 3월 초부터 급수지역 (대구시·경산시·영천시·청도군, 약 88만 명)의 대규모 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, 비상공급시설 가동을 통해 올해 홍수기 전까지 생활·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.

- 참고로, 비상공급시설 취수(12만 7천 톤/일)에 따른 금호강 하천유량 감소를 고려하여 작년 11월부터 여유가 있는 임하댐에서 추가 공급하여 영천댐에 저류하였으며, 영천댐에서 비축한 수량을 추가 방류하여 금호강 하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,

\* 영천댐은 '17년 7월 말부터 하천유지용수 11만 5천 톤/일(30 → 18만 5천 톤/일)을 감량·비축하였으며, '18년 1월 말부터 하천유지용수 정상공급 회복 (현 저수율은 예년의 133%)

- 영천댐 하류 금호강 하천수\* 수질은 수질환경기준 II등급(약간 좋음) 수준으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사용이 가능하며, 고산정수장 정수처리 공정을 거치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생산에 문제 없는 상황이다.

\* 비상공급시설 인접 경산취수장도 동일 하천수를 취수하여 사용 중으로, 경산정수장의 정수 처리를 통해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수돗물을 공급 중
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“이번 비상공급시설 통수를 통하여 운문댐 급수지역의 차질 없는 용수 공급은 가능할 전망이나 가뭄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댐 저수율도 크게 낮은 상황인 만큼, 정부의 가뭄 극복 노력과 함께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물 절약이 필요하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- 통수식 행사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, 지방자치단체장, 한국수자원공사 사장, 금호건설 사장 등 100여 명의 각계 인사 및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대정동에 위치한 경산취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.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임성훈 사무관(☎ 044-201-36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 1

## 금호강계통(광)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개요

### □ 사업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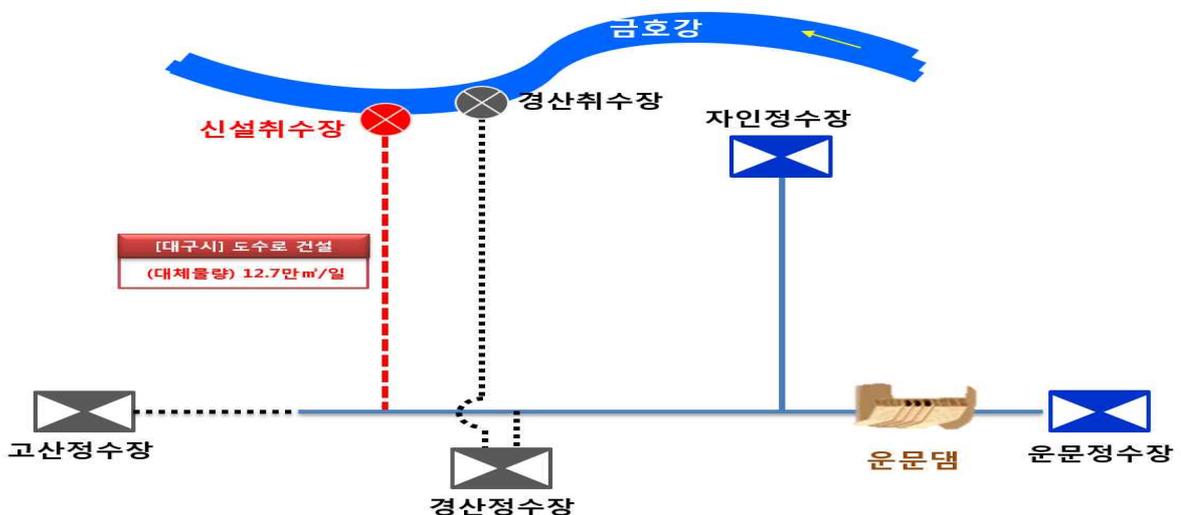
-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위 도달이 우려됨에 따라, 급수지역 (대구시·경산시·영천시·청도군, 약 88만명) 대규모 용수부족 예방을 위하여 금호강 물을 취수하여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비상공급시설 긴급 추진

### □ 주요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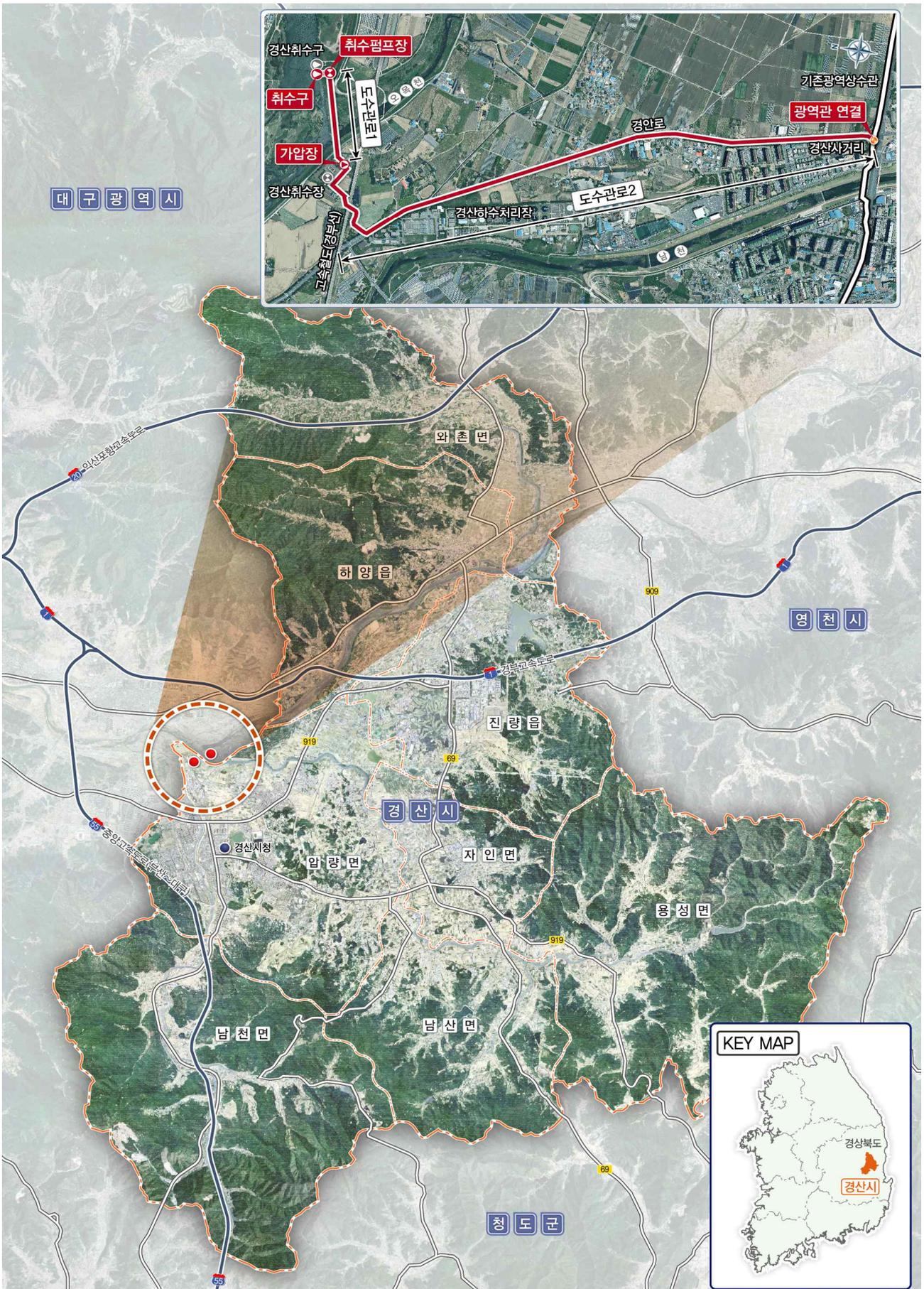
- '17. 8~9월 : 비상공급시설 계획수립 및 관계기관\* 사전 협의  
\* 국조실, 기재부, 환경부, 행안부, 대구시,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 등
- '17. 10. 19. :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 및 사업추진 결정
- '17. 11. 24. :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사업 착공
- '18. 2. 1. : 비상공급시설 시험통수 개시 (12.7만톤/일)
- '18. 2. 13. : 비상공급시설 통수식 및 본통시 개시

### □ 금호강 계통 비상공급시설 개요

- 시설용량 : 12.7만톤/일
- 시설개요 : 취수시설(취수펌프장 1개소, 가압장 1개소) 및 도수관로 3.1km
- 사업비 : 275억원 ('17.11.24. 착공 → '18.2.13. 통수 → '18.12. 사업 준공)
- 공급계통 : 금호강 → 비상공급시설 → 금호강계통(광역) → 대구시 고산정수장



# □ 사업 위치도



## 참고 2

## 금호강계통(광) 비상공급시설 통수식 [通水式] 개요

□ (일 시) 2018년 2월 13일(화), 10:40 ~ 11:40 (60분)



□ (장 소)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현장 (경산취수장)

\* 주소 : 경북 경산시 대정동 69-1

□ (주 빈) 국토교통부 제1차관

□ (포상규모)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10名

\* 수자원공사 2, 시공사(원) 1, 시공사(하) 4, 설계사 1, 지자체 2

□ (참석인원) 100名

### 【주요 내·외빈】

구 분	참석자	구 분	참석자
정 부	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	K-water	CEO, 낙동강권역이사
지자체	대구시 행정부시장, 대구시의회 의장, 경산시장, 경산시의회 의장, 청도부군수 등		

\* (시공사) 금호건설 CEO, (설계사) 신우Eng. CEO